



경륜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역주하는 선수들. 광명, 부산에서 왕중왕전과 대상경륜 등 경륜 빅이벤트가 연이어 열려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종진 흔들...판 흔들 '새 황제'는?

왕중왕전 28일 광명서 개최, 별 총출동 내달 12일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륜 황인혁·성낙승 급부상...충청권 급등주

경륜 빅이벤트가 광명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광명에서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이 펼쳐진다. 연말 그랑프리와 더불어 최고의 경륜 축제로 꼽히는 왕중왕전은 상반기 성적 우수자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일종의 울스타전 성격이다. 올 시즌 벨로드롬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매 경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

승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특선급은 경륜을 대표하는 슈퍼특선 5인방과 이들을 바로 뒤에서 추격 중인 신예와 베테랑들까지 총출동한다. '경륜 황제'로 꼽히는 정종진과 철웅성 같은 수도권의 위상이 흔들리자 우승 향방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황인혁, 성낙승이 급부상한데다, 수도권과 경남으로 양분됐던 세력 다름도 충청권의 득세와 맞물려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왕중왕전이 춘추전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선발·우승급 상위 35명이 출전하는 경주 역시 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경륜 잔치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스포원이 주관하는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륜'이 그 무대다. 선수 선발과 상급, 경품까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될 이번 부산 대상경륜은 광명과 창원에 교차 수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대진 방식은 1일차 독립 대전과 2, 3일차 예선과 결승으로 이뤄진다. 자체 경주 포함 총 20개 경주 중 가장 핫한 특선 대상 3경주가 금·토요일 광명 9, 10, 11경주로 열리고, 일요일은 14, 15, 16경주로 전국 교차투표로 진행된다. 광명과 창원에서도 수준 높은 특선급 대상 경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경륜 왕중왕전과 부산 대상경륜에는 팬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과 특별 무대도

마련된다. 광명에서는 경주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억을 소환하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 스포원은 50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비롯해 냉장고, 청소기, TV, 건조기, 스타일러 등을 추첨 증정한다. 또한 애널리스트 초청 경기 설명회, 특선급 선수들과의 만남, 선수 사은품 증정행사 등도 열린다.

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벨로드롬의 여름 축제로 불리기에 손색없는 빅이벤트다. 까다로운 편성에 선수들의 승부욕이 고조되고 이에 변화무쌍한 전개와 함께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고배당을 대비한 베테랑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7월 3일, 경륜경정 삼쌍승식 발매 변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7월 3일부터 경륜, 경정 경주 발매방식을 조정한다. 7월 5일부터는 경륜 대진 방식도 변경해 운영한다. 발매 방식 조정은 특별경주(대상경주)에서만 베테랑이 가능했던 삼쌍승식이 경정의 경우 매 회차 12경주부터 16경주까지, 경륜은 매 회차 특선급 경주까지 발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발매방식 조정은 그동안 균형 있는 배당에 대한 고객의 끊임없는 요구를 반영했다. 경륜 대진 방식은 올 시즌 지난주까지 실시했던 트라이얼(1, 2일차 예선 성적 합산 상위 7명 결승전 진출) 방식을 1일차 독립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대진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경주 편성이 가능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SPO, 재일동포 수학생에 장학금 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 20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재일동포 3~4세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여건이 재일본 대한국민단장 등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올림픽유스호스텔의 건립 재원을 마련해준 재일동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0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경정 전반기 막판, 터닝포인트 위해 첫 승 쓴다"

고참 박민수·손근성 등 반전 모색 막내기수 15기도 절반이상 무승

경정 21회 차(6월 19, 20일)를 기점으로 다승 선두는 21승의 심상철(A1 38세 77)이다. 김종민(A1 43세 27)이 17승으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조성인(A1 32세 127) 15승, 김응선(A1 35세 117) 14승, 이태희(A1 49세 17) 13승으로 총총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6명의 선수가 현재 10승 이상을 올렸다.

하지만 많은 승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아직도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선수들도 상당수다.

고참 기수에서는 1기 박민수(A2 49세)와 부상으로 인해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2기 손근성(B1 48세)이 있다. 4기 신동길(B1 42세)도 아직 우승이 없다. 이들은 스타트 기록이 심하고 1전에서 전제 불안정으로 인해 순위권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중간 기수(5~10기)는 9기 신현경(A2 40세)만이 유일하지만 최근 실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전반기 중에 승전보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신인기수로 분류되는 14~15기는 아쉬움이 크다. 팔뚝만한 성적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14기 12명 중 구분선(B2 29세), 김성찬(B2 33세), 서종원(B2 31세), 이지은(B2 30세), 하서우(B2 26세) 등 5명이 아직 첫 승을 기록하지 못했다. 경주경험이 많지 않아 고전할 수도 있지만 순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스타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경정 막내인 15기들도 2018년 하반기(28회 차, 7월 11일)부터 실전 경주에 출전해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기존 선수와의 혼성 편성에서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 16명 중에서 아직 시즌 1승을 못한 선수가 7명이나 된다. 지난해 성적까지 포함해 개인 1승을 기록하지 못한 선수도 김재현(B 225세), 박민영(B2 24세), 신선길(B2 31세), 한유형(B2 32세) 등 4명이나 있어 분발이 요구된다.

'경정고수' 이서범 예상분석 전문위원은 "고참 기수와 중간 기수들은 실전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언제든지 모터 배정 운이 따라주면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잡아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전 경주경험이 미흡한 14~15기 선수들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많은 연습과 실전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토토

야구팬 "롯데 4~5점, KT 2~3점" 1순위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26일에 열리는 2019시즌 KBO리그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롯데-KT(1경기)전에서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이 예고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원정팀인 KT는 42.09%를 기록했고, 홈팀인 롯데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는 41.46%의 지지를 받았다. 나머지 16.45%는 양 팀의 같은 점수대를 예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점수대는 롯데(4~5점)-KT(2~3점)가 6.68%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6~7점)-KT(2~3점)과 롯데(2~3점)-KT(4~5점)가 각각 5.93%와 5.86%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KT는 리그 8위(33승45패)로 10위(29승1무46패)에 머물고 있는 롯데보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 양 팀 상대전적에서도 KT가 7승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KT가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롯데는 KI

A, 한화, 키움을 상대로 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그 결과 롯데와 한화(리그 9위)의 격차가 1.5경기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롯데는 이 시리즈를 계기로 최하위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이번 맞대결에서 롯데가 사직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안방의 이점까지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지난 상대전적의 열세를 극복하고 KT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NC-한화(2경기)전에서는 원정팀인 한화의 승리 예상이 51.76%로 나타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고, 홈팀 NC의 승리 예상은 32.42%를 기록했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5.82%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NC(2~3점)-한화(4~5점)가 8.09%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삼성-두산(3경기)전에서는 삼성 승리 예상(54.44%), 두산 승리 예상(30.08%),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5.48%)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삼성(4~5점)-두산(2~3점)이 8.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LG-SK 승자는? 케이토토 '예측의 신' 이벤트

페이스북 통해 경기결과 맞히기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col)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예측의 신(神)'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의 대상경기는 26일 오후 6시30분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2019 KBO 리그 LG(홈)-SK(원정)전이며, '홈팀 LG가 승리한다', '양팀 최종 득점의 합이 10점 이상이다', '양팀 홈런 수의 합이 2개 이상이다'의 총 3가지 O.X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2승4패로 뒤지고 있는 LG가 SK를 상대로 안방에서 승리를 노린다. 성적으로 볼 때 우위에 있는 팀은 원정팀 SK다. 다펜팅 챔피언 SK는 올 시즌 선두를 달리며 2시즌 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LG 역시 3위로 상위권이지만, 최근 KIA와의 3연전에서 1승 후 2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하락했다. 게다가 연승을 달리고 있는 SK의 경우 올 시즌 특히

원정에서 26승11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케이토토 건전화 이벤트 마감 임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이 진행 중인 6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건강한 토토와 함께하면 핏츠기릿!'이 마감에 앞당기고 있다.

30일에 응모를 마감하는 이번 이벤트는 25일 오전 현재 1만4000명이 넘는 토토팬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베타맨이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스타카도 안타티카 MTB 자전거(1명)와 아디다스 슈펠러2 배드민턴 세트(10명),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10명)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타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배틀 500개를 지급한다.

한편 이번 이벤트의 당첨자는 7월 2일에 공지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베타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